

# 백화점 · 대형할인매장에서 무차별 할인판매

거의 모든 출판사의 책들 깔려 있어 ... 자멸 위기 막을 대책 시급

상설 도서할인점에 이어 대형 백화점과 상설 할인매장에서도 도서 가격을 무차별로 낮춰 판매하고 있다. 지난 봄 전국으로 번진 할인판매(본지 233호 참조)의 불씨가 사그라드느라 싶더니 이들의 가세로 또다시 불꽃이 일고 있다.

출판계는 이들의 상행위를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출판유통체계의 허점이 이들의 상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혼탁해진 지식산업의 원류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출판계 스스로 자성하고, 유통망 혼란을 막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베스트셀러는 거의 다 할인판매

현재 도서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백화점은 갤러리아 잠실점, 뉴코아 서울·평촌·성남·부천점 등이다. 갤러리아는 《중, 균, 쇠》(문학사상), 《내 스무살을 울린 책》(작가정신), 《98 올해의 좋은 소설》(현대문학), 《나폴레옹 1~3》(문학동네), 《봄날》(문학과학지성), 《홍어》(문이당), 《드래곤라자》(황금가지) 등 신간도서를 10%씩 할인판매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잡지를 제외한 도서 전종을 할인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 중점대상으로 뽑는 도서는 베스트셀러 위주 소설·인문·실용·여성·사건·아동 등이다.

뉴코아의 할인 정도는 더욱 심하다. 《왜란 종결자》(돋네), 《징기스칸》(해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창작과비평), 《형그리 정신》(생각의 나무), 《로마인 이야기》(한길사), 《변명》(이룸),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 등 단행본과 《꼬마 유령의 저녁 식사》(사계절), 《날마다 하나씩 우스개 옛이야기》(웅진), 《식물은 왜》시리즈(예림당), 《강아지똥》(길벗어린이), 《백고양이》(여명) 등 아동서적, 《프라이밍 영화사전》(두산동아), 《학습국어사전》(교학사), 《옛센스 일한사전》(민중서림) 등 사전류, 그리고 《준비된 말이 성공을 부른다》(가야미디어),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 있다》(명진) 등 인문·실용서를 20% 할인판매한다. 같은 매장에서 《하늘이여 땅이여》, 《징기스칸》, 《왜란종결자》, 《숨은그림찾기》, 《람세스》, 《산에는 꽃이 피네》, 《더불어 숲》,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108가지 이야기》 등은 정가에 팔기도 한다. 이런 기현상에 대

대형 할인매장에서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한 거의 모든 책을 무차별 할인판매하고 있다. 출판사는 할인매장에 책을 출고하지 않았다고 하고, 도매상은 유통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유통경로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와 할인판매를 하건간에 이 문제는 출판계의 위기를 몰고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해 매장 직원은 “독자에게 이익을 주면 그만”이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미도와 본점 메트로서점은 구간 할인판매와 ‘현책 시주기’를 병행하고 있다. 현책을 가져가면 500~2000원짜리 쿠폰을 주고, 신간구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판계는 이를 새로운 형태의 할인판매로 여긴다.

이들은 한결같이 ‘독자 이익’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독자 이익을 위한 선의의 상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서 유통경로를 뒤흔들고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 할인율은 10%, 20%로 고정되어 있지만 상설 할인점은 불이기 나뉘어 있다. 일산 가르푸는 《변명》, 《또박이 만화 일기》(대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보림) 등 13%, 《모순》(살림),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푸른숲), 《모리와 함께 화요일》(세종서적), 《할수 있다! 컴퓨터》(영진) 등 17%,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만》(금토), 《부드러운 직선》 등은 20%, 《광수생각》(소담), 《더불어 숲》(중앙M&B), 《왜란종결자》, 《나폴레옹》, 《JJ가 온다》 등은 23% 할인판매하고 있다. 기왕에 할인한 책도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300~500원씩 더 할인해 준다.

소설·비소설·실용 등 단행본 150여종과 아동 100여종, 그리고 기타 30여종을 구비한 양평동 프라이스클럽의 할인율은 더욱 높고도 다양하다. 《우먼센스》, 《에센》, 《베스트 베이브》 등 잡지류 18%, 《지식혁명보고서》(매경), 《할 수 있다! 컴퓨터》 등 23%, 《대한민국 50년사》, 《일본여도》, 이문열의 《삼국지》 등 27%, 《잠들기 전에 엄마가 들려주는 20가지 이야기》(지경사), 《영혼을 위



베스트셀러를 비롯한 각종 도서를 할인판매하고 있는 일산 가르푸.

한 닭고기 수프》, 《옛센스 국어사전》, 《어린이 영어사전》 등 30% 할인하여 판매한다. 출판사의 6000원짜리 책은 3100원에 판매하고 있어 할인율이 무려 48.8%에 이른다. 일부출판사의 도서가 30~40종씩 진열되어 있다.

## 대책마련 업계 노력은 없어

할인판매는 출판유통의 문제점을 반증한다. 프라이스클럽에서 책을 고르던 한승주(31)씨는 “할인점이 상품유통의 틈새 시장을 노린 것이지만 책의 유통망까지 그런 허점이 있는 줄은 몰랐다. 일반서점에서 책을 산 것이 억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독자 김의식(39)씨는 “책까지 할인판매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일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이 불쾌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 주부는 “아이들이 한번쯤 보고 버릴 책을 사는 것이야 괜찮지 않느냐”고 했다. 이처럼 독자의 다양한 반응은 할인판매의 빌미로 작용한다.

도서는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할인매장으로 흘러든 걸까. 출판계의 반응은 평행선을 달린다. 출판사는 할인매장에 책을 출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도매상은 나름대로 책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주장한다.

출판사는 단행본의 경우 도매상에 65%, 서점에 75%로 출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간과 베스트셀러의 경우 60%, 70%에 출고하기도 한다. 도매상에 60%로 출고했을 경우, 도매상은 책을 모두 판매하고 난 뒤에 4개월짜리 어음으로 결제한다. 할인점에서 현찰매절을 요구해 납품했다면 도매상은 최소한 4개월 이상 자금회전에 따른 이익을 얻

을 수 있다. 출판사가 도매상을 의심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도매상의 입장은 완강하다.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출판사들이 현금 유혹에 걸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 50% 정도 할인판매되는 책이 있는 현실에서 도매상에 혐의를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유통구조의 왜곡이 심해지자 55%대 매절을 요구하는 서적조합체(소위 나까마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매절요청이 출판사마다 쇄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매상 또한 같은 유혹을 받고 있다. 뉴코아에 진열된 할인대상 책 중에 상당수가 ‘상륙’이라는 비표가 찍힌 것은 무슨 뜻일까.

출판유통의 문제점은 할인판매의 확산으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할인판매 저지를 위한 출판계의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출판유통 체계를 북마전에 비유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출판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이전 투구는 정점을 향해 치달리고 있는 듯하다. 문이당 임성규 대표는 “출협에서 또는 영업인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서적조합연합회 김윤석 사무국장은 “일차 책임은 출판사에 있다. 책을 공급하는 출판사가 먼저 할인판매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판인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에 일견을 가진 누구라도 할인판매의 확산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 알고 있으며, 이를 막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공감하는 것에 머물 때가 아니다. — 오완진 기자